

SUV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는 일반적으로 차체가 높고 무거운 승용차보다 움직임이 둔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과 핸들링이 둔하기 쉬운데, SUV에 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연습을 통해 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 방향 바꾸기 전에는 충분히 속도 줄여야

SUV는 일반 승용차보다 최저지상고와 무게중심이 높고 서스펜션이 상하로 움직이는 정도도 더 크다. 또한 대부분 너비와 길이가 비슷한 일반 승용차보다 무겁다. 이런 물리적 특성은 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를 몰 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커브를 돌 때에는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에 스티어링 휠을 부드럽게 조작해야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SUV는 일정한 각도로 방향을 틀 때 승용차의 스티어링 휠보다 더 많이 돌리게 되어 있다. 이런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더디게 방향을 트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리기 쉽다. 저속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고속에서는 이런 조작이 언더스티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동을 할 때에도 차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차체가 크고 무거운 뿐 아니라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급제동할 때에는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하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기 쉽다.

■ 스티어링 휠 조작은 항상 부드럽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피시테일은 차의 좌우방향 무게 중심 움직임이 흐트러지면서 뒷바퀴가 충분한 접지력을 확보하지 못할 때 차체 뒤쪽이 심하게 흔들려 스티어링 휠 조작으로도 차의 움직임을 바로잡을 수 없는 현상이다.

SUV는 차체가 높아 일반 승용차보다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일반 승용차는 무게 중심이 낮아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면 스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SUV는 피시테일이 전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급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SUV의 스티어링 휠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 더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shutterstock

새 타이어 길들이기는 필요할까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에는 '타이어 길들이기'가 필요하다. 타이어의 주재료인 고무를 비롯한 여러 구성 물질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타이어를 길들이는 작업이다. 금호타이어(blog.kumhotire.co.kr)가 타이어 길들이기에 대해 설명했다.



있는 타이어로 탄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새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새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에는 안전운행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생산 후 4-5년 이상

지난 타이어는 노후화로 인해 고무가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타이어가 가진 성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4-5년 이상 된 타이어는 물리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타이어 길들이기'란

사용하던 타이어에 비해서 새 타이어는 부드럽고 무른 편이다. 그 때문에 타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행 중 발생하는 적당한 온도로 타이어의 성질을 단단하게 바꾸는 즉, 균형 있는 마모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타이어 길들이기'라고 한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300km에서 많게는 600km를 정속 운행하며 길들여야 하는데, 새 타이어 장착 후 주행 과정에서 타이어 겉면의 껍질이 벗겨지고, 주행 중 발생하는 반복적인 온도 차이로 인해 고무 성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겨울용 타이어는 600km 이상 주행하며 길들이는 것이 추천된다.

■ 타이어는 새것일수록 좋다?

타이어는 새것일수록, 즉 만들어진 날짜가 가장 최근일수록 좋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나온 따끈-한 신형 타이어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타이어에 적절한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이어는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 3-6개월이 지난 제품이 좋다. 이 기간 동안 타이어의 주재료인 고무를 비롯하여 카본, 스틸벨트, 원단, 화학제품 등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후 비로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 타이어 길들이기엔 급제동 & 급가속이 좋다?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하면 타이어는 물론, 브레이크를 길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사용은 타이어의 마찰열을 높게 만드는데, 이것은 타이어 트레드에 편마모를 유발하고 접지면을 변형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

또한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디스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특수 환경에서의 레이스 주행이 아닌 이상, 급제동과 급가속 모두 도로 질서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해야 한다.

■ 건강한 타이어 유지 TIP

설명한 것처럼 급출발과 급제동은 자제한다. 제자리에서 핸들 조작하는 것도 좋지 않으며, 비포장도로를 자주 주행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모두 타이어의 불규칙한 마모를 유발하며 수명 또한 단축시키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가 길들여지는 시기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